

파푸아뉴기니

- 김운용 남영미 선교사

이 곳에서 성경번역 사역을 하며 가장 필요한 것은 자료입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료들을

찾아가며 부족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하나님께서 여러 방편의 돕는 손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더불어 기존에 사용하던 프로그램이 단종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던 자료들마저 너무나 기적적인 다른 선교사님과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남영미 선교사는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면역력과 체력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파키스탄

- 정OO 정OO 선교사

지진과 홍수의 여파가 아직도 마무리 되지 않은 가운데 기존 정부가 군부와의 갈등으로 실각을 당하고 현재 무정부 상태로 국

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총선을 할 비용이 없고 IMF로 인해 폭발적인 고물가와 부패정치로 힘 없는 서민들만 고통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을 틈타 강경 무슬림들은 많은 교회들을 공격하고 있는데 너무나 놀랍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도리어 교회로 나오오고 있습니다.

매일 같이 질병과 귀신이 떠나가고 지하가정교회들이 세워지며 무슬림

들이 개종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주세요.



요르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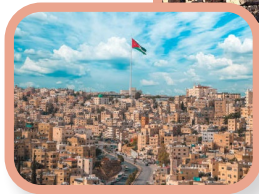
- 고OO 이OO 선교사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은 이제 나라를 넘어 서방과 아랍이라는 이념의 전쟁으로 확대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독교는 다시 어려운 길을 걷게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 땅과 민족을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난민 사역을 하며 수많은 영혼들이 스쳐지나 갑니다. 이 사역 가운데 만나게 되는 여러 돕는 손길들이 끊어지지 않고 또 그들을 통해 다시 널리 복음이 퍼져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특별히 이제 현지교회를 통해 종교거주 비자를 신

청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선교부 광고

- 11.12.2023

1. 단기 선교 일정과 모집 안내
▷아르메니아 아라캣TD
11/25-12/5, S/L: 백승환 선교사, 렉터: 장영호 장로 (714.414.8601)

▷ 나바호 2023 성탄예배 참가자 모집
12월 7-9일, 회비 \$200 (MONUMENT VALLEY 관광 포함) 문의: 문기훈 목사 714.351.7212

3. 선교부 디보션 안내
선교부 디보션이 매월 2째, 4째 주 오전 9시 비전센터 223호에서 있습니다. 선교사님들과 직접 만나며 선교지 비전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선교부 디보션에는 은혜교회 성도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선교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4. 온라인 선교지 소식
WWW.YOUTUBE.COM/@GMIMMISSION
WWW.FACEBOOK.COM/GMIMMISSION/

5. 의료선교국 주일 상담
매주 주일 10:00-11:15AM.
문의: 의료선교국



대한예수교 장로회 국제총회
은혜한인교회
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GMI 총재: 한기홍 목사)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714. 446. 6200
gkcgmiusa@gmail.com
www.gmimission.org

2023년 11월 GMI-GKC 선교사 현황 : 62개국 329명 (자체 파송 79%)

11.12.2023

GRACE 선교소식

2023년도 세계선교 마무리를 향해!

- GMI 총재 한기홍 목사



2023년 은혜한인교회는 세계선교 마무리의 비전을 가지고 다음세대와 연합하여 땅끝까지 세계선교를 감당하기 원합니다.

1 세대를 통해 받은 세계선교의 비전과 열정이 다음세대로 이어져 세계선교 마무리의 비전을 모든 세대가 함께 이루어 감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기홍 목사님을 위한 기도

11월에도 계속되는 한기홍 목사님의 사역 일정들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케냐

- 황광식 원지혜 선교사

할렐루야! 올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곳 케냐는 더위가 일찍 시작되어 10월 한 달은 낮에 바깥 온도가 40도를 넘나들며 얼마나 더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11월이 되면서 갑자기 케냐 전국에 비가 왔는데 어떤 지역은 홍수가 나 물에 잠길 정도로 비가 쏟아졌습니다.

매년 예측하기 어려운 기후와 그로 인한 변화들 속에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그 분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 살기를 기도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팔레 지역에 시카라고 은혜교회를 다녀왔습니다. 킬리피에서는 차로 4-5시간 정도 걸리는 케냐 북동부 해안에서 내륙 시골쪽으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특히 이 지역에는 GMI 은혜교회가 20개 이상 있는데 매년 교회 리더들이 교회가 없는 곳에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지난달 제6회 유치원 졸업식과 초등학교 첫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300명이 넘는 전교생과 학부모들, 이웃들이 모여 함께 축하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곧 국가고사가 시작되는데 시험만이 아닌 이 땅과 이 민족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복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손 모아 기도하였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지원을 통해 유치원부터 신학교에 이르기까지 정수필터와 물탱크를 설치하였는데 흙탕물로 밥을 짓고 빨래를 하며 사용하던 아이들부터 학부모

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기뻐하며 감사하였습니다.

이 땅에 맑은 물로 모두가 기뻐하였듯이 계속해서 복음의 생명이 이 땅에 가득 퍼져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세요.



캄보디아 1

- 김영대 조정아 선교사

금년에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16명의 학생들이 신학교에 등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르신 이들을 통하여 캄보디아와 열방을 향

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저희는 현지교회와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도록 빛과 소금 장학금으로 격려하고 있습니다. 총 14명을 선발하여 학업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건강한 그리스도인들로 성장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더불어 이곳 교회는 이제 현지인 중심체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세워지고 있는 현지 교회 건축이 잘 이루어지고 이곳의 뜨거운 예배의 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캄보디아 2

- 이범신 손민지 선교사

코로나 이후 캄보디아는 미디어의 영향력이 너무나 커져서 현지 사역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현장 예배와 영상예배가

함께 드러지며 영상예배를 통한 부흥의 소식이 들릴 정도로 그 여파가 엄청납니다.

저희는 이에 발맞추어 주일학교 사역, 찬양팀 양성 및 영상제작, 기독교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여 계속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통해 캄보디아 곳곳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더불어 신학교를 통해 굳건

한 주님의 일꾼들이 양성될 수 있도록 또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미얀마 1

- 한OO 김OO 선교사

호산나 교회는 그 동안 정부 인가 문제로 언제 교회를 달아야 할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장로교단과

연결되며 정식 라이선스를 받기 위한 과정 중에 있으며 이 일이 성사되면 저희와 상관없이 교회가 계속해서 남을 수 있게 됩니다. 끝까지 함께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글학원사역을 9월부터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평일에는 한글 학원으로 그리고 주일에는 교회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곳을 통해 귀한 영혼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또한 누구보다 복음전파에 열심인 후임 사역자가 굳건한 마음으로 교회를 잘 세워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유치원과 한글학원사역을 통해 복음전파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해주세요.



미얀마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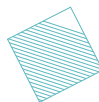
- 광OO 엄OO 선교사

미얀마는 여전히 사회, 정치 모두가 혼란스럽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신앙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난민이 된 가정들이 모여 예수 마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매일 함께 모여 식사를 나누고 또 함께 예배하며 절박한 상황에서도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정착지 주소가 없어서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못하던 부모들의 한이 해결될 수 있게 되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은 청년들이 모여 말씀을 배우고 체계적인 신앙훈련을 통해 이 땅의 복음전도자로 세워져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주님의 귀한 역사가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또한 한국과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

<1분단상 122-11월호>

-김대규 장로

이러한 기쁨은 인간의 감성만 가지고는 나타낼 수가 없는 부분이다.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구원하시므로 totally 회복시켜 주셨기에 이에 따라 상실했던 원래의 기쁨도 누릴 수 있게 된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한 것이다. 이때 “주 안에서(엔 퀴리오: *En Kyrio*)”라고 한 것은 기쁨의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해준다.

이는 주님이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는 것(요15:10,11)”이라고 한 말씀에 기인한 것이다. 여기서 “내 기쁨”이란 말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기뻐하신 기쁨을 말한다.

따라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주의 계명 안에 있을 때에 주님이 누렸던 기쁨을 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다(갈5:22).

이 서신을 보냈을 당시 사도바울은 고난과 함께 로마옥에 갇혀 있었는데 믿음에 굳게 서 이러한 기쁨의 생활을 하고 있었다. 걱정과 근심에 쌓여 있어야 마땅한데 이보다는 주님만을 의지하였기에 성령님께서서는 당면한 것들을 극복하고 뛰어 넘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어느 하나 변한 것이 없는데도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된 것 이었다. 오히려 이 기쁨을 가지고 걱정하는 빌립보 성도들을 위로하였던 것이다.

나의 이야기이다. 얼마 전 갑자기 폐렴이 생겼다. 엘러지성 감기가 원인이었다. 응급실에 들어갔으나 불안이나 걱정은 없었다. 늘 하듯이 첫 기도가 생사화복의 주권은 아버지께 있으니 원하시는대로 하시라고 모든

것을 주께 맡겼다. 나의 마음은 평강으로 충만했다. 나도 모를 기쁨이 솟아나 폐렴이 상관없는 듯이 여겨져 초월할 수 있었다. 그 후 마치 과녁을 맞춘 화살처럼 “주가 채찍을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사53:5)”의 말씀이 내 가슴 속으로 파고 들었다. 그리곤 4일만에 퇴원을 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필요에 따라 구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늘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주께 맡길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성령님은 이러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환경이나 처한 처지에 상관없이 그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주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신다. 이것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하나의 원리이다.

믿음의 선진들을 보더라도 온갖 수난과 역경에도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생명 같이 여긴 것은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평강과 희락이 큰 힘이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도 믿음의 본질대로 나를 내려놓고 주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때 주님이 공급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근심있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케 하고 아무 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고후6:10)”라고 고백하였다.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주변만 맴도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본질로 들어가 항상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즐기는 주의 참 된 제자가 되어야 한다. 세상을 뛰어넘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 위에 서서 주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사도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하였다. 당시 빌립보 교회는 대내외적으로 고난과 분열을 겪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우리네 처지도 마찬가지이다. 짧은 하루를 지내는데도 많은 사적이 생겨 기쁨으로만 가득 찰 수가 없다. 그런데도 “항상 기뻐하라”고 한다.

원래 기쁨이 충만했던 시절은 에덴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던 때였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었던 그 기쁨. 그것이 원천적인 기쁨인 것이다.

그런데 이 기쁨을 우리는 상실하고 말았다.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수고와 땀과 고통이 찾아와 원천적인 기쁨을 상실했을 뿐 아니라 그것을 생각할 겨를도 없게 되었다. 그저 눈에 보이는 만족, 성취감에 즐거워하는 세상적 관념의 충동적인 기쁨이 모두인양 착각 속에 살게 된 것이었다. 이것은 세상에서 익혀진 것이지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 나의 노력이나 행동의 댓가로 얻어지는 상대적인 기쁨인 것이다.

그러나 “항상 기뻐하라”의 판토테 카이레테(πάντοτε χαίρετε)는 원하는 일이 성취되었을 때 얻는 기쁨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역경과 고통 속에서도 기뻐하는 것을 포함한다.